

에너지의 날 캠페인으로 87만kW 절전

전력거래소는 에너지의 날을 맞아 오후 2-3시 냉방온도 2도 올리기, 밤 8시30분-9시 소등하기 등 캠페인을 통해 총 87만kW의 전기를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월23일 밝혔다.



전력거래소는 8월22일 서울시청 광장에 이동 전력수급 상황센터를 설치해 시민에게 실시간 전기사용량을 공개했다.

원전 한빛 6호기 가동 정지 영향으로 8월22일 전력수급정보 2단계 <관심>이 발령됐으며, 순간 예비력이 329만kW까지 내려가는 등 전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.

에너지의 날 절전 캠페인에는 전국 16개 시도와 에너지시민연대 263개 회원단체, 남산타워, 코엑스, 63빌딩 등이 동참했다.

<화학저널 2013/08/23>